

2012 논술, 폐지될 것인가

0. 도입부

지난 2월 9일 서울대는 2012 수시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교과부는 논술시험을 보지 않거나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 8개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대 수시 논술 폐지 잠정 결정

[서울대 수시 전형 방법 요약]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지역균형선발	1단계: 교과 100 2단계: 서류+면접100	서류+면접100
특기자선발	1) 지원자격 : 재수생까지 <자연> [1] 서류100 [2] 서류50+면접50 <인문> [1] 서류100 [2] 서류50+면접30+논술20	1) 지원자격 : 제한없음 <자연> [1] 서류100 [2] 서류50+면접50 <인문> [1] 서류 100 [2] 서류+면접

2. 교과부의 논술 폐지 의지

1) 논술 안 보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침 (2011.12.5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아예 보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논술시험이 갈수록 ‘본고사화’하면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대표적 전형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5일 입학사정관제를 대표적인 대입 전형으로 정착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논술 지양형’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 지표에 입시 관련 지표를 추가해 창의적·자기주도적 전형을 강화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이번 가산점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신입생 선발제도인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후략)...

2) 교과부 장관, 대학 총장에 “논술 비중 줄여달라” 요구 (2011.1.7 뉴시스 이현주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7시30분 주요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입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논술의 경우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내신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학들이 논술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책의 취지"라고 못박았다.

...(후략)...

3. 상위권 주요 대학의 현행 논술 전형 및 변화 방향

3-1. 연세대와 고려대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연세대 일반우수자	선발규모: 1200명 선 전형방법: [우선60] 논술80+학생부20 [일반] 논술50+학생부50	선발규모: 소폭 변동 예상 전형방법: 소폭 변동 예상
고려대 일반	선발규모: 1400명 선 전형방법: [우선50] 논술100 [일반]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유지 예상

3.2 서강, 성균관, 한양, 이화, 중앙, 경희대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서강대 일반	선발규모: 340명 선 전형방법: [1]논술50+교과20+비교과10 [2]1단계80+구술면접2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논술 비중 축소 가능성
	선발규모: 400명 선 전형방법: 논술70+교과20+비교과1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논술 비중 축소 가능성
성균관대 일반	선발규모: 1300명 선 전형방법: [우선50] 논술100 [일반]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미정
한양대 일반우수자	선발규모: 1000명 선 전형방법: [우선50] 논술80+학생부20 [일반]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논술 비중 축소 검토 중
중앙대 논술우수자	선발규모: 700명 선 전형방법: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축소 검토 중 전형방법: 검토 중
이화여대 일반	선발규모: 600명 선 전형방법: [우선50] 논술80+학생부20 [일반]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축소 검토 중 전형방법: [우선]논술75, [일반]논술50으로 축소 검토 중
경희대 일반학생	선발규모: 800명 선 전형방법: [우선30] 논술100 [일반] 논술60+학생부40	선발규모: 유지 예상 전형방법: 논술60+학생부40 (논술100%전형 폐지 예상)

결론

- [1] 서울대는 2012학년도 모든 수시 전형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한다.
- [2] 상위권 주요 대학 중 다수가 논술 전형의 형식적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대규모의 논술 선발 규모 축소와 대대적인 논술 전형 폐지는 없을 것이다.